

양의지, 골든글러브 통산 10회 ‘최다 타이’



이승엽 이어 역대 두 번째…올해 타율 0.337·홈런 20개 기록
최형우, 41세 11개월 최고령 경신…안현민, 신인왕 동시 석권

양의지(두산 베어스·사진)가 프로야구 통산 최다 타이 기록인 골든글러브 10회 수상 기록을 세웠다. 양의지는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포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양의지는 2014년~2016년, 2018년~2023년에 이어 통산 10번째 골든글러브 주인공이 됐다. 2021년에만 지명타자로 수상했고, 포수로는 9번째 ‘황금 장갑’을 낀 양의지는 이승엽 전 두산 감독에 이어 프로야구 사상 통산 두 번째로 골든글러브 10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포수 부문 9회 수상은 단일 포지션 최다 수상 신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한대화 전 한화 이글스 감독과 최정(SSG 랜더스)의 3루수 부문 8회 수상이었다.

이승엽 전 감독은 1루수로 7회, 지명타자로 3회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양의지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130경기에 출전, 타율 0.337, 홈런 20개, 89타점의 성적을 냈다. 올해 양의지가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으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 양의지와 강민호(자유계약선수)가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양분하는 판세가 이어졌다. 이달 초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KIA 타이거즈에서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한 최형우는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1983년 12월생인 최형우는 만 41세 11개월에 골든글러브를 수상, 지난해 자신이 세운 역대 최고령 골든글러브 기록을 새로 썼다. 최형우는 올해 정규시즌 133경기에 나와 타율 0.307, 홈런 24개, 86타점을 기록하며 개인 통산 8

번째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그는 2011·2013·2014· 2016·2017년에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고,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2020년과 2024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또 득표율 97.8%(316표 중 309표 획득)로 올해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 외야수 부문 안현민(KT 위즈)은 신인상과 골든글러브를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신인이 골든글러브를 받은 것은 통산 19번째로 2006년 류현진(한화) 이후 올해 안현민이 19년 만이다. 또 신인왕과 골든글러브를 석권한 사례는 안현민이 통산 9번째다. 안현민은 올해 112경기에서 타율 0.334, 홈런 22개, 80타점으로 활약했다. 투수는 다승(17승), 평균 자책점(1.89), 탈삼진(252개), 승률(0.944) 4관왕에 오른 코디 폰세(한화), 1루수는 홈런(50개), 타점(158점), 장타율(0.644) 3관왕의 르윈 디아즈(삼성)가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에서는 염경엽 감독이 초대 감독상 수상자가 됐고, 2루수 신민제가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염경엽 감독은 “이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 도 저히 선수들, 코칭스태프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한 단계 성장하는 팀과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에 도전하는 송성문(키움 히어로즈)이 3루수 부문, NC 다이노스 김주원은 유격수 부문에서 나란히 영예를 안았다. KIA, SSG 소속 골든글러브 주인공은 나오지 않았다. 노경은(SSG)이 페어플레이상, 박해민(LG)은 골든포토상을 각각 받았다. /연합뉴스

PGA투어 도전…옥태훈·노승열·배용준 Q스쿨 출격

5위까지 출전 자격 부여

옥태훈과 노승열, 배용준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퀴리파이(Q)스쿨에 출전한다. 올해 PGA 투어 Q스쿨은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에서 열린다. 176명이 출전하는 이 대회는 TPC 소그래스다이스 벨리코스(파70·6850야드)와 소그래스CC(파70·7054야드)에서 2라운드씩 총 4라운드 경기로 진행된다. 상위 5명이 2026시즌 PGA 투어 출전 자격을 얻고, 이후 상위 40명(공동 순위 포함)에게는 2부 투어인 콘페리투어 출전 자격을 준다. 이 40명 가운데 상위 25명은 콘페리투어 시즌 초반 14개 대회 출전이 보장되고, 이후 15명은 시즌 초반 10개 대회에 나갈 수 있다. 나머지 순위 선수들은 콘페리투어 조건부 출전 자격을 갖게 된다. 지난해에는 공동 순위자에게 다음 시즌 PGA 투어 시드를 모두 부여했으나 올해는 연장전을 치러 5명에게만 PGA 투어 출전권을 준다. 한국 선수로는 옥태훈, 노승열, 배용준이 출전한다. 옥태훈은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며 제네시스 대상, 상금, 평균 타수, 다승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5일 미국으로 떠난 옥태훈은 KPGA를 통해 “시차 적응과 코스 확인을 위해 일찍 출국했다”며 “2번 정도 코스를 돌며 연습은 물론 코스 매니지먼트를 섬세하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적 부담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옥태훈



노승열



배용준

며 “트레이너, 퍼트 코치, 전문 캐디와 팀을 이뤄서 미국에 온 만큼 최상의 팀워크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승열은 2014년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DP 월드투어에서도 1승이 있는 노승열은 지난해에도 PGA 투어 Q스쿨에 출전해 공동 8위에 올랐다. 올해 5월 KPGA 클래식에서 우승한 배용준은 올해 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5위 자격으로 PGA 투어 Q스쿨 2차전에 진출했고, 2차전을 통

과하며 Q스쿨 최종전에 올라왔다. 지난해 이승택은 PGA 투어 Q스쿨에서 공동 14위를 기록, 콘페리투어에 진출했고 콘페리투어에서 선전하며 2026시즌 PGA 정규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PGA 투어 통산 5승의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를 비롯해 지난해 Q스쿨 최종전 우승자 랜도 그리핀(미국) 등이 출전하며 이시카와 료(일본), 교보 선수 김찬(미국)과 더그 김(미국) 등도 주목할 선수들이다. /연합뉴스

세계 랭킹 47위 도약…김시우, 마스터스 출전 보인다

50위 이내 출전 자격

김시우가 남자 골프 세계 랭킹 47위가 되면서 2026년 마스터스 출전 가능성을 부풀렸다. 김시우는 8일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54위에서 7계단 오른 47위가 됐다. 이로써 김시우는 2026년 마스터스 출전 자격 가운데 하나인 올해 연말 세계 랭킹 50위 이내를 충

족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시우는 7일 호주 멜버른에서 끝난 DP 월드투어 호주오픈에서 단독 3위에 오르며 세계 랭킹을 50위 안쪽으로 끌어 올렸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마스터스에 출전한 김시우는 올해에는 마스터스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김시우는 메이저 대회에서는 올해 미국프로골

프협회(PGA) 챔피언십 공동 8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다. 김시우는 호주오픈 3위 성적으로 2026년 디오픈 출전권을 획득했고 2년 만의 마스터스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랭킹 42위 임성재는 올해 PGA 투어 챔피언십 진출로 세계 랭킹과 무관하게 이미 2026년 마스터스 출전 자격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전국체전 ‘3관왕’ 손현호, 시체육회 올해의 선수

올해의 감독엔 고광구 감독

전국체전 ‘3관왕’에 빛나는 역대 손현호(광주시청)가 광주시체육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손현호를 지도한 고광구 감독은 ‘올해의 감독’이 됐다. 광주시체육회가 9일 오후 2시 빛고을체육관에서 체육단체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육성팀 단체인 등 광주 체육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한 해를 빛낸 광주체육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손현호가 올해의 선수가 됐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 역도 남자 일반부 81kg급에서 3개의 금메달을 들어 올린 손현호는 앞서 2025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한국 첫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로도 이름을 올렸다. 손현호를 이끈 고광구 감독은 ‘올해의 감독’ 영예를 안았다. 광주체고 신재이의 한국신기록 달성에 기여한 홍혜선 편수영 지도자는 ‘올해의 지도자’ 상을 받았다. 수피아여고 농구팀과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올해의 단체로 선정됐다.

수피아여고는 전국체전에서 2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야구 동호인 저변 및 대회 확대 등 종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 올해의 클럽으로 동강공공스포츠클럽(회장 최화권)이 뽑혔고, 생활체육 부문 올해의 지도자로 임은자 북구체육회 지도자가 선정됐다. 올해의 동호인에는 유연술(광주시페라글라이딩협회)씨가 이름을 올렸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 등 체육회와 회원단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기업·기관 10곳은 감사패를 받았다. 이명식 목속산업개발(주) 대표 등 13명은 광주 시장 표창을, 이현식 에이스그룹 대표 등 13명은 광주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성자영 광주체고 레슬링 감독 교사 등 12명은 광주시교육감 표창 수상자가 됐다. 체육계 여성 원로인 김광아 광주시야구협회장은 공로패를 받았다. 김 회장은 올해 광주세계야구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지원, 광주지역 야구대회 확대 등에 역할을 하는 등 광주 야구 발전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천재 바둑소녀’ 김은지, 세계대회 첫 우승

‘여제’ 최정에 불계승

한국 여자 바둑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천재 바둑소녀’ 김은지(18) 9단이 드디어 세계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은지는 9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에서 열린 제8회 오정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결승 3번기 3국에서 최정(29) 9단에게 22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종합 전적 2승 1패를 기록한 김은지는 2020년 입단 이후 처음 세계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12월 한국 여자랭킹에서도 최정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김은지는 그동안 국내 대회에서는 9차례 우승했지만, 세계대회에서는 결승에 오른 것도 처음이었다. 최종 3국은 초반 포석에서 흑은 실리, 백은 세력으로 균형을 이뤘다.

세 귀를 먼저 차지한 김은지는 좌변 백 세력에 뛰어난 뒤 백점을 짚으며 깔끔하게 타가에 성공해 단숨에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불리해진 최정은 우상귀에서 변화를 모색했으나 김은지는 침착한 응수로 집 차이를 벌리며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패색이 드러난 최정은 이후 100여수 동안 반전을 노렸지만 역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결국 돌을 던졌다. 김은지는 이날 승리로 최정과 상대 전적을 9승 20패로 좁혔다. 최정을 상대로 국내·세계 대회 타이틀 매치에서는 2승 5패를 기록했다. 오정원배 상금은 우승 50만위안(약 1억400만원), 준우승 20만위안(416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씩이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기원 공모전시
호점몽 : 고미아 개인전

일시 : 2025-12-05(금) ~ 2025-12-31(수)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1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Winter Rhapsody'

일시 : 2025-12-12(금)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